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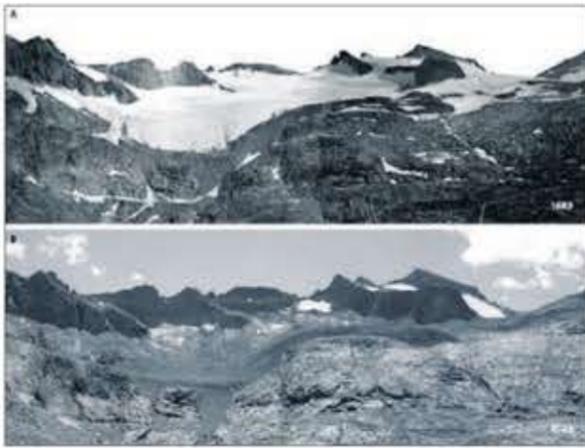
가주 시에라네바다 빙하 사라질 위기

캘리포니아 시에라네바다 산맥 깊숙한 곳에서 수만 년 동안 존재해온 거대한 빙하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으며, 22세기 초에는 완전히 녹아 사라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로써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시에라네바다의 봉우리들이 얼음 없이 드러나게 될 전망이다.

최근 과학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시에라네바다의 빙하는 이전 연구보다 훨씬 오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빙하는 마지막 빙하기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논문은 "복원된 빙하의 역사에 따르면, 미주 대륙에 인류가 정착한 약 2만 년 전 이후로 시에라네바다가 빙하가 없는 상태였던 적은 없었다"며 "다가올 빙하 없는 시에라네바다는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지구 곳곳의 빙하들은 기후 위기로 인해 급속히 위협받고 있다. 올해 5월 발표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전 세계 빙하의 약 40%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 결국 녹을 운명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만약 현재 추세대로 지구 평균



▲ 캘리포니아 요세미티 국립공원 이스트 라일 빙하의 1883년위와 2022년 비교 모습, 사진-미국 지질조사국

기온이 2.7도 상승할 경우, 전체 빙하의 최대 75%가 사라져 해수면 상승과 대규모 인구 이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논문에 따르면, 서부 전역의 빙하들은 19세기 후반 처음 기록된 이후 크게 위축됐다. 이번 연구는 시에라네바다 산맥의 주요 빙하 4곳인 코니스, 맥클루어, 라일, 팰리셰이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시에라네바다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빙하로, 연구진은 이들이 서부 지역 빙하 소멸의 '지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최근 노출된 암반을 분석해 해당 지역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음으로 덮여 있었는지를 측정했다. 그 결과, 이 빙하들이 인류가 북미 대륙에 정착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왔음을 확인했다. 논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빙하는 약 3만 년 전 이미 최대 범위에 도달했으며, 일부 빙하는 7천 년 전에도 다시 확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 저자 중 한 명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얼음이 없는 봉우리를 보게 될 것"이라며, 이번 결과가 단순한 환경 변화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연방조달청, 해고 직원에 복귀 요구

정부효율부 '비용 절감' 역효과 드러나

연방정부 섣다운 속에서 공무원이 대량 해고될 수도 있지만 일론 머스크의 비용 절감 정책에 따라 일자리를 잃었던 수백 명의 연방 직원들은 다시 일터로 돌아오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P는 입수한 내부 메모를 바탕으로 연방조달청(GSA)이 정부 사무공간을 관리하던 직원들에게 복귀 여부를 통보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사실상 유급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셈인데, 이 기간 동안 GSA는 해지 예정이던 임대 건물이나 계약이 만료된 건물들을 유지하느라 상당한 비용을 지출했고, 결국 이 부담은 고스란히 납세자에게 전가됐다.

최근의 복귀 요청은 DOGE가 타깃으로 삼았던 다른

부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국세청(IRS)은 조기 퇴직을 받아들인 일부 직원들의 잔류를 허용했고, 노동부와 국립공원관리청도 해고됐던 일부 인력을 복귀시켰다.

DOGE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 1만2,000여 명이던 GSA를 주요 감축 대상으로 삼고, 사기·낭비·비효율 제거를 목표로 삼았다. 머스크의 측근 그룹은 GSA 본부에 상주하며 7,500건의 임대 계약 중 절반 가까이를 해지하고 수백 개의 연방 소유 건물을 매각하려는 계획을 밀어붙였다. 이에 따라 800건 이상의 임대 해지 통보가 건물주에게 발송됐고, GSA는 매각 대상 건물 목록까지 공개했다. 그러나 반발이 거세지자 이들 계획은 대폭 축소

됐다. 현재까지 480건 이상이었던 해지 예정 임대는 보존됐으며, IRS·사회보장국·식품의약국 등 주요 기관이 사용하는 사무공간이 포함됐다.

DOGE가 당초 임대 해지로 4억6,000만 달러를 절감할 것이라던 추정치는 지난 7월 기준 1억4,000만 달러로 낮아졌다.

인력 감축은 충격적 수준이었다. 본부 직원의 79%, 포트폴리오 매니저의 65%, 시설 관리 인력의 35%가 줄었다는 것이 한 연방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실제로 131건의 임대가 만료됐음에도 정부가 해당 건물을 비우지 못해, 건물주가 다른 임차인을 받지 못하면서 과다 비용이 발생했다.

용문루

GRAND OPENING

Authentic Chinese Korean Cuisine
Eat Good, Feel Good











홈 파티 케이터링 환영

**각종 파티 및
 단체 모임 환영**
 파티용 10~50명 수용 가능

용문루 T.626.363.4961
www.yongmoonlu.com

월,수,목,금 11:30am ~ 3:00pm
4:30pm ~ 9:00pm 토,일 11:30am ~ 9:00pm
19240 Colima Rd. Rowland Heights, CA 91748